

진안성수 반룡마을-전주 한옥마을 교동석갈비 ‘맞손’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 창출 기대

진안군 성수면 반룡마을이 전주 한옥마을 내 교동석갈비와 지난 22일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교동석갈비 대표(박병권)와 반룡마을 이장(강성환) 등 주민 40여명이 참석하였고, 반룡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약속하는 등 서로간의 화합과 결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동석갈비 대표는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를 반룡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구입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환 이장은 “지난해에도 반룡마을에서 생산한 고추, 배추, 고구마, 호박등 구입으로 마을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안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석 성수면장은 “오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재전 및 재경 향우회 등 진안출신 운동 사업장을 발굴하여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2일 진안 성수면 반룡마을이 전주 한옥마을 내 교동석갈비와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금석배전국학생축구대회 자원봉사단, 활발한 활동 ‘극찬’

‘2016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를 위해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지난 21일 출범한데 이어 바로 현장에서 활동을 진행해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극찬을 받고 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체정룡)와 대한적십자사 군산지부(회장 김봉례)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외 8개 경기장을 직접 찾아 관중들에게 음료봉사 및 민원 처리 등 전방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등부 심판을 배정받은 노경민(29, KFA2급) 심판은 “5년째 심판으로 활동 했지만 이번 대회처럼 중식봉사가 운영되는 대회는 처음이다”며 “어려님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배식까지 해주시니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3670지구 전주남문로타리, 삼천2동 방문 이웃돕기 성금기탁

3670지구 전주남문로타리클럽(회장 이용호)은 지난 21일 전주시 삼천2동주민센터를 방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50만 원의 상당의 백미와 이불을 전달했다.

이용호 전주남문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천2동 지역발전위원회(회장 박종선)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각종 행사를 펼쳐 왔으며, 삼천2동 그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대접 및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안병식 삼천2동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봄소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기탁된 물품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축구협회, 금석배 성공 개최 도운 군산시에 쌀 기탁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는 22일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사랑의 쌀(10kg) 130포(3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유종희 전북축구협회 전무이사는 “금석배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신양면 도와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산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행복한 사회 분위기와 나눔 문화 조성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스한 정을 나누는 전라북도축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 나눔을 통해 삶의 향기를 더하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더민주 신경민 의원, 부안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 가입

전북 출신인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CMS)에 가입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최근 서울서 열린 2016년 제경부아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신경민 국회의원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좋은 뜻에 동참하고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후원회원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김종규 이사장은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국)350-032 전주시 완산구 기관대로 222 4층 (서노승동)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부지사 010-9088-0074	남부지사 02-3398-0074	고침지사 580-6009
010-9085-4113	인후지사 246-0665	김제지사 547-0665	임실지사 010-9088-0075
심천지사	송북지사 258-2404	완주지사 246-0655	진안지사 433-0064
010-233-4949	괴제지사 259-0664	남원지사 632-0195	정읍지사 539-33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6-015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682-8107
효자지사 010-8045-9835	의성지사 884-920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5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현요강을 준수합니다.

엄정용 전주시 산악연맹 회장 취임

전주시산악연맹에서는 지난 21일 전북산악연맹 김성수 회장을 비롯한 일원과 산악단체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신상선 회장 이임식과 제8대 엄정용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제7대 신상선 회장은 이임사에서 “1970년 창립한 전주시산악연맹은 그동안 이를디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연생태복원 운동과 등산인구 2000만 시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 등에 앞장서 왔다”며 “임기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엄정용 회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전주시연맹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억울하고 진취적으로 운영되는 산악연맹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디운 산행, 시민건강 숲 체험 산행, 숲 길지도사 자격시험, 스포츠클라이밍의 활성화 등의 사업에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용진신협 이사장에 두철균씨 당선

제13대 용진신협 이사장에 두철균(64·사진)씨가 당선돼 24일 취임한다.

두 당선자는 “이제 용진신협 본점 한곳 중심의 성장·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동반리 지점의 활성화 및 신규 회원 가입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두 당선자는 “사회단체 등 외부의 인맥을 총동원해 예금유치와 대출일선 등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선자는 선거기간 마을회관·경로당 방문 공과금 수납·인출 업무 시행과 자산 400억 및 당기순이익 1억5천만원 달성, 조합원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 강구 등을 광야으로 제시했다.

한편 두철균 당선자는 용진초아 전라고, 용인대를 졸업했으며 새마을운동 전주시 시무국장과 자유총연맹 전북지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 유도회 회부장, 용진읍체육회 이사, 전북시설유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 결혼 이민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22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열었다.

이날 결혼이민자 범죄예방교실에서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새내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생활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민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수칙과 112 범죄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왔다.

또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방법, 처리절차,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흥행을 끊었다.

윤혜성 외사계장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기생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노영 기자

전주 평화2동 문정마을,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평화2동(동장 심규문) 문정마을은 22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정월대보름 행사는 풍물놀이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문정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대보름 음식나누기, 소원을 적고 소망을 기원하는 달집 소원지 달기 순으로 진행됐다.

문정마을은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음식을 준비하고 온 주민이 하나 되는 달집 태우기 의식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김상만 문정마을 청년회장은 “달집태우기 축제를 통해 대보름 아래서 한해의 소원을 기원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 송천2파출소, 민·경 합동 범죄예방 홍보 펼쳐

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소장 이시현)는 22일 전주천변 생활체육공원 소재 송천동 대보름맞이 행사장 일원에서 민경 합동 범죄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경찰 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원과 함께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척결 및 강·절도 예방법, 연인간 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처요령에 대해 홍보했다.

송천2파출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품보활동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등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노영 기자

기사제보 288-9700